■ 민족문화연구 제95호(2022.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83-402.
http://doi.org/10.17948/kcs.2022..95.383

강원·경북 동해안 접경 지역의 w 반모음화 관련 현상*

김봉국(金鳳國)**

목 차

1. 서론
2. 활용상에서의 w 반모음화 관련 현상
3.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의 접경지역인 삼척 지역어와 울진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여 w 반모음화와 관련된 현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w 반모음화와 관련된 현상이 음운론적인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① 동사의 어간말음절 두음의 자음 유무, ② 자음이 있을 경우에는 자음의 종류, ③ 동사 어간의 음절수, ④ 어간말이 개음절인지 폐음절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규칙의 적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기타 자음인 경우에는 1음절 어간에서 〈삼척〉은 w 반모음화가, 〈울진〉은 w 반모음화 이후, w 탈락 또는 '워→오' 축약이 일어났으며, 2음절 어간에서 〈삼척〉은 w 반모음화가, 〈울진〉은 w 반모음화에 이은 w 탈락이 일어났다. 또 어간말 후음 어간인 경우에는 어간 음절수에 관계없이 〈삼척〉은 후음 탈락에 이은 w 반모음화가, 〈울진〉은 후음 탈락, w 반모음화, w 탈락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 본 연구는 2021년도 부산교육대학교 연구역량지원과제로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부산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ㅂ인 경우에는 〈삼척〉, 〈울진〉 모두 w 반모음화에 이은 필수적인 w 탈락이 일어났다.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인 경우에는 〈삼척〉, 〈울진〉 모두 1음절 어간에서 w 반모음화가 일어났지만, 한 음절에 두 개의 성조가 병치되지 않는 예외적인 특징을 보였다. 2음절 어간에서 〈삼척〉은 w 반모음화가, 〈울진〉은 w 반모음화에 이은 w 탈락이 실현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ㅅ 불규칙활용과 관련된 예 중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순음인 경우에 두 지역어 모두 후음 탈락, w 반모음화, w 탈락이 일어났고,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기타 자음인 경우에 〈삼척〉은 후음 탈락, w 반모음화가, 〈울진〉은 후음 탈락, w 반모음화, '워→오' 축약이 일어났다.

ㅂ 불규칙활용과 관련된 예 중 〈삼척〉은 w 반모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특징을 보이나, 〈울진〉은 어휘에 따라서 w 반모음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휘에 따라서는 ㅂ 규칙활용을 하기 때문에 w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주제어: 삼척 지역어, 울진 지역어, w 반모음화, '워→오' 축약, 반모음 w 탈락, 접경지역, 불규칙활용, 복수기저형.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의 접경지역인 삼척 지역어와 울진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여 w 반모음화 관련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1] 경상북도 울진 지역은 1963년 이전까지 강원도에 속해 있었다. 그러다가 1963년 전국의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경상북도에 편입되었고, 이후로 줄곧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해 있다.

이 두 지역어는 한때 행정구역상 강원도에 속해 있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접하고 있는 〈삼척〉과 〈울진〉은 방언적인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있을 것이다.

1) 이하 삼척 지역어는 〈삼척〉으로, 울진 지역어는 〈울진〉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삼척〉의 자료는 김봉국(2000, 2001, 2013)을 가져온 것이며, 〈울진〉의 자료는 원광대 임석규 교수로부터 입수한 것(오○○, 여, 84세,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과 필자가 2021년 경북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대에서 조사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삼척〉과 〈울진〉이 가진 언어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되, 활용상의 w 반모음화 관련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강원 〈삼척〉와 경북 〈울진〉에 대한 반모음화 관련 현상을 다룬 논의로는 이병근(1973)이 있으며,[2] 〈삼척〉을 대상으로 한 김봉국(2000, 2001), 〈울진〉을 대상으로 한 주상대(1989, 1992), 윤주희(2017) 등이 있다.

이 중 이병근(1973)은 〈강릉〉, 〈삼척〉, 〈울진〉을 대상으로 하여 y 반모음화와 w 반모음화를 다루되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를 나누어 세 지역어의 방언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있으며, 김봉국(2000, 2001)에서는 〈삼척〉을 대상으로 하여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반모음화 현상을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정밀하게 분류한 후 음운론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두 지역어 사이의 w 반모음화 관련 현상에 대해 음운론적 환경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기술하고, 두 지역어의 방언차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을 시도한 연구는 이병근(1973) 이외에는 거의 없었던 듯하다.

이 글에서는 〈삼척〉과 〈울진〉에서 보여 주는 활용상의 w 반모음화 관련 현상을 음운론적인 환경에 따라 정밀하게 분류하고, 이 환경에 따른 w 반모음화 관련 현상에 대해 정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삼척〉과 〈울진〉의 지리적 위치

2) 이익섭(1972)는 강릉 지역어의 형태소를 경계로 실현되는 음운현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반모음화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을 한 바 있다.

2. 활용상에서의 w 반모음화 관련 현상

활용상에서의 w 반모음화는 어간말음절의 '오/우'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아'와 결합했을 때 반모음 w로 변동되는 음운현상을 말한다. 활용상에서의 반모음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논의는 일찍이 김완진(1972), 이병근(1978)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데, 주로 반모음화의 통사 범주에 따른 제약과 보상적 장모음화 관련 문제 등을 정밀하게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런 선행 업적을 바탕으로 하여 〈삼척〉, 〈울진〉에서 실현되는 활용상에서의 w 반모음화 관련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한국어의 경우, 활용상에서의 w 반모음화의 양상은 음운론적인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① 동사의 어간말음절 두음의 자음 유무에 따라서, ② 자음이 있을 경우에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서, ③ 동사 어간의 음절수에 따라서 ④ 어간말이 개음절인지 폐음절인지에 따라 w 반모음화 관련 현상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해서 〈삼척〉과 〈울진〉의 w 반모음화 관련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3]

1)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자음인 경우—ㅂ과 ∅인 경우는 제외—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과 순음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일 때, 두 지역어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음절수를 고려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가. 좌도[LH/L·HL],[4] 좌라[LH/L·HL], 주고[HL], 준다[LH] 〈삼〉
자도[HH/L·HL], 자라[HH/H·HL], 주고[HL], 준다[HH] 〈울〉
돠야[LH/L·HL], 둔다[LH] 〈삼〉

3) 강원 〈삼척〉의 모음은 'ㅣ, ㅖ, ㅐ, ㅟ, ㅚ, ㅡ, ㅓ, ㅏ, ㅜ, ㅗ'의 10개이며, 성조소는 L, H이고, 경북 〈울진〉의 모음은 'ㅣ. ㅐ, ㅓ, ㅏ, ㅜ, ㅗ'의 6개이며, 성조소는 L, H이다. 〈삼척〉은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였으며(필요에 따라서는 형태음소 표기를 함), 〈울진〉은 '에:애, 으:어'의 대립이 없으나, '에'와 '애'와 '으'와 '어'는 각각 표준어에 준해 표기하였다.

4) 활용형의 성조형은 LH와 L·HL이 수의적인 교체를 보여 준다. 활용형을 조사하는 주의 깊은 발화 상황에서는 성조형이 L·HL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고, 일상 발화에서는 LH와 L·HL가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다라[HH], 두시오[LHL], 두소[HH] 〈울〉
나. 쏴야[LH], 쐈다[LH], 쑨다[LH](활을~) 〈삼〉
쏘라[HH/H·HH], 쑜다[HH], 쑨다[HH] (활을~) 〈울〉
다. 놔야[LH], 눈다[LH](오줌을~) 〈삼〉
나야/노야[HH], 났나[HH], 눈다[HH](오줌을~) 〈울〉

(1)은 어간이 1음절이다. 〈삼척〉의 경우에는 (1가-다)의 예에서 모두 w 반모음화 규칙이 적용되어 (1가)의 '좌도', (1나)의 '돠야', (1다)의 '쏴야'로 실현되었다. 〈울진〉의 경우에는 어휘에 따라 규칙의 적용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 먼저 (1가)는 w 반모음화에 이은 반모음 w의 탈락으로 '자도'가, (1나)는 w 반모음화에 이은 '워→오' 모음축약으로 '쏘라'가 실현되었으며, (1다)는 w 반모음화에 이어 경쟁 규칙인 w 탈락(나야)과 '워→오' 축약(노야)이 수의적으로 적용되었다.

〈울진〉에서는 형태소 경계에서 w 반모음화가 실현된 후 반모음 w 탈락 아니면 '워→오' 축약이 적용되는데, 이는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는 통시적인 변화 과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이병근 1973:146). 〈울진〉에서는 '저나[L·HL](〈전화), 애삼춘[L·HL](〈왜삼춘〈외삼촌), 하살[HL](〈화살), 모카[HH](〈목화), 자무새[LHL](〈자물쇠), 기아집[LLH](〈기와집)'처럼 형태소 내부에서 반모음 w가 탈락된 경우도 있고, '곤서방[LHL](〈권서방), 꽁[H](〈꿩), 한 곤[LH](〈한 권), 곤해라[L·HLL](〈권해라)'처럼 형태소 내부에서 '워〉오' 축약이 된 경우도 있다. 즉 형태소 내부에서의 통시적인 변화와 형태소 경계에서의 공시적인 음운변동이 서로 평행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의 예들은 음장이 대립되는 지역이라면 w 반모음화가 일어나면서 줄어드는 음절에 대한 보상으로 필수적인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음장이 대립되는 지역과는 달리 성조 지역인 이 두 지역어에서는 음장 지역의 필수적인 보상적 장모음화에 대응하는 성조의 복합조화 현상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1가)의 '좌도'를 예로 들자면, '주[L]+아도[HL]'가 결합하여 음소 층위에서는 w 반모음화에 의해 '좌도'가 되지만, 성조 층위에서는 한 음절에 저조와 고조가 병치되어 저고복합조화에 의해 '좌도[L·HL]'가

형성되거나, 일반화된 어절 성조형인 LH형이 음절수에 따라 '좌도[LH], 좌야만[LHL](주+어야+만), 좠겠지만[LHLL](주+었+겠+지만)'처럼 실현되기도 한다.[5]

(1)과 같은 음운론적 환경에서 음장 지역이라면 보상적 장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지만 성조 지역은 그에 대응하는 복합조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복합조화가 일어나지 않는 대신 음절수에 맞춰 성조형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가 진정한 성조 언어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고복합조가 일어나는 것은 음소 층위와 성조 층위가 자립분절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이며, 이는 성조 언어로서의 특징을 갖는 것이라면, 저고복합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음소 층위의 음운규칙이 적용된 후, 음절수에 따라 성조소가 자동적으로 배당되기 때문에 이는 일본어와 비슷한 음조-악센트(pitch-accent) 언어로서의 특징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두 지역어가 진정한 성조 언어로서의 특징을 보일 때 (1가)의 '좌[L·H]'와 '자[H·H]'가 도출되는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고,

〈삼척〉
주[L]+아라[HL]
↓ - w 반모음화(L·H화)
좌라[L·HL]

〈울진〉
주[H]+아라[HL]
↓ - w 반모음화(H·H화)
좌라[H·HL]
↓ - w 탈락
자라[H·HL]

〈울진〉에서 나타나는 (1나)의 '쏘라[H·HH]'가 도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5) 김봉국(1998)에서는 〈삼척〉의 일반화된 어절 성조형이 'LL형, LH형, H형, R형'이 있다고 하였는데, '주-'는 제2음절이 고조인 LH형이다.

〈울진〉
쑤[H]+어라[HL]
↓ - w 반모음화(H·H화)
쒀라[H·HL]
↓ - '워→오' 축약
쏘라[H·HL]

이번에는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기타 자음이면서 2음절 어간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알과도[HLL], 알과라[HLL], 알군다[HLL](알리-) 〈삼〉
알가도[LH·LL], 알가라[LH·LL], 알군다[LHL] 〈울〉[6]
메꽈라[LHL/LH·LL], 메꾼다[LHL](메우-) 〈삼〉
메까라[LHL/LH·LL], 메꾼다[LHL](메우-) 〈울〉
살과라[HLL], 살군다[HLL](사귀-) 〈삼〉
살가라[LHL/LH·LL], 살군다[LHL](사귀-) 〈울〉
내롸도[LH·LL], 내롸라[LH·LL], 내룬다[LHL] 〈삼〉
내라야[LH·LL], 내라라[LH·LL], 내룬다[LHL] 〈울〉

(2)의 예를 보면, 〈삼척〉은 w 반모음화가 일어난 반면 〈울진〉은 w 반모음화에 이은 반모음 w 탈락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지역어 모두 2음절 어간일 때 어미로는 '-아'가 선택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삼척〉은 형태소를 사이에 두고 '자음+w+모음(CwV)' 연쇄를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음소 층위에서는 w 반모음화만 일어나는 반면, 〈울진〉은 형태소 경계에서 '자음+w+모음(CwV)' 연쇄를 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음소 층위에서 w 반모음화에 이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만큼 반모음 w 탈락이 빈번히 일어난다.

〈울진〉에서는 w 반모음화가 일어나더라도 (1나)의 예와는 달리 모음축약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2음절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로 '-아'가 선택되어

6) 〈울진〉은 주의 깊은 발화나 일상 발화에서 w 반모음화를 겪은 '알과도, 메꽈라' 등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w 반모음화가 실현된 어형보다 w 탈락이 실현된 어형이 실현 빈도 면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울진〉의 가장 전형적인 방언형은 '알가라, 메까라' 등이라 할 수 있다.

‘워→오’ 축약이 일어날 수 있는 음운론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2)의 도출 과정을 살펴보면, 〈삼척〉의 ‘알구[HL]+아[L]’는 음소 층위에서 w 반모음화에 의해 ‘알과[HL·L]’가 되었으며, 성조 층위에서 w 반모음화에 의해 한 음절에 저조와 저조가 병치되는 저장조(L·L)가 실현된 후, 저장조가 실현되지 않는 성조배열제약 때문에 L 탈락이 되어 ‘알과[HL]’가 실현된 것이다. 〈울진〉의 ‘살구[LH]+아라[LL]’는 음소 층위에서 w 반모음화에 의해 ‘살과라[LH·LL]’가 되었으며, 성조 층위에서 w 반모음화에 의해 한 음절에 고조와 저조가 병치되는 고저복합조(H·L)가 실현되어 ‘살과라[LH·LL]’가 실현된 후 반모음 w 탈락으로 ‘살가라[LH·LL]’가 실현된 것이다.

이 두 지역어에서는 비어두음절의 경우에 종종 LH와 L·HL이 수의적인 교체를 보여 준다. 즉 활용형을 조사하는 주의 깊은 발화 상황에서는 성조형이 L·HL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고, 일상 발화에서는 LH와 L·HL가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살과라[LH·LL]’는 음소 층위에서 w 탈락이 발생하고, 성조 층위에서 고저복합조(H·L)의 L이 탈락하여 ‘살가라[LHL]’라 실현되기도 한다. (2)의 도출 과정을 요약해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삼척〉	〈울진〉
알구[HL]+아라[LL]	살구[LH]+아라[LL]
↓ – w 반모음화(L·L화)	↓ – w 반모음화(H·L화)
알과라[HL·LL]	살과라[LH·LL]
↓ – L 탈락	↓ – w 탈락
알과라[HLL]	살가라[LH·LL]
	↓ – L 탈락
	살가라[LHL]

(1)과 (2)는 개음절 어간일 때 w 반모음화 관련 현상을 다루었는데, 폐음절 어간일 때 w 반모음화 관련 현상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가. 놔서[H·LL], 노소[H·LL], 놓고[HL], 〈삼〉
나서[H·LL], 놓고[HL] 〈울〉
조와[L·HL][7], 좋고[L·HL], 좋다[L·HL]〈삼, 울〉
나. 찌과사[LHL/LH·LL], 찌구꼬[LHL](끼우-) 〈삼〉
찌가라[LH·LL], 찌구코(끼우-) 〈울〉
전좌야[LHL/LH·LL], 전주꼬[LHL](겨누-) 〈삼〉
전자야[LH·LL], 전주코(겨누-) 〈울〉
모돠야[LHL/LH·LL], 모두꼬[LHL](모으-) 〈삼〉
모다라[LH·LL], 모두코[LHL](모으-) 〈울〉

(3가)는 어간말이 후음 ㅎ인 1음절 어간이며, (3나)는 어간의 재구조화에 의해서 형성된 2음절의 후음 ㅎ/ㅎ 어간이다. 그런데 (3나)의 예를 보면, 〈삼척〉은 후음 ㅎ 어간(찌궇-, 전좋-, 모둫-)인 반면 〈울진〉은 후음 ㅎ 어간(찌궇-, 전좋-, 모둫-)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가)의 '놓-+-아'를 보면 〈삼척〉은 후음 ㅎ 탈락(노아[HL])과 w 반모음화(놔[H·L])의 도출 과정을 거쳤으며, 〈울진〉은 이 중간 과정에다 w 탈락(나[H·L])이 더 적용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좋-+-아'의 경우에는 두 지역어가 모두 동일하게 '놓-'과는 다른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후음 ㅎ 탈락에 의해 '조아[L·HL]'가 된 후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반모음 w 첨가가 일어나 '조와[L·HL]'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존재라 할 만하다.

(3나)의 도출 과정은 두 지역어 모두 (3가)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바, '모둫-/모둫-+-아'를 예로 든다면 〈삼척〉은 후음 ㅎ 탈락(모두아[LHL]), w 반모음화(모돠[LH·L])의 과정을 거쳤으며, 〈울진〉은 후음 ㅎ 탈락(모두아[LHL]), w 반모음화(모돠[LH·L]), w 탈락(모돠[LH·L])의 과정을 거쳤다. (3나)의 도출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조와'의 성조형이 두 지역어 모두 L·HL뿐만 아니라 H·HL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실현 빈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L·HL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고, 주의 깊은 발화에서는 L·HL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H·HL는 L·HL의 변이음으로 처리하는 편이 낫다.

〈삼척〉
모둫[LH]+아라[LL]
↓ - ㅇ 탈락
모두아라[LHLL]
↓ - w 반모음화(H·L화)
모돠라[LH·LL]

〈울진〉
모둫[LH]+아[LL]
↓ - ㅎ 탈락
모두아라[LHLL]
↓ - w 반모음화(H·L화)
모돠라[LH·LL]
↓ - w 탈락
모다라[LH·LL]

[정리]

〈표 1〉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자음인 경우

어간말/ 어간 음절수		규칙 적용 양상	지역어
개음절	1	w 반모음화	〈삼〉
		w 반모음화, w 탈락 w 반모음화, '워→오' 축약	〈울〉
	2	w 반모음화	〈삼〉
		w 반모음화, w 탈락	〈울〉
후음	1	ㅎ 탈락, w 반모음화	〈삼〉
		ㅎ 탈락, w 반모음화, w 탈락	〈울〉
	2	ㅇ 탈락, w 반모음화	〈삼〉
		ㅎ 탈락, w 반모음화, w 탈락	〈울〉

2)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ㅂ인 경우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순음인 경우에 실현되는 w 반모음화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4) 바도[L·HL], 바라[L·HL], 보니[LH] 〈삼〉
바도[L·HL], 바라[L·HL], 보라고[HLL], 보니[HL] 〈울〉
(5) 아파사[HLL], 아푸다[LHL](아프-) 〈삼, 울〉
노파사[HLL], 노푸다[LHL](높-) 〈삼, 울〉
지파사[HLL], 지푸다[LHL](깊- 〈삼, 울〉
나빠[HL], 나뿌다[LHL](나쁘-) 〈삼, 울〉

(4)는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ㅗ'인 경우인데, 두 지역어 모두 '보-+-아'의 도출 과정을 보면, w 반모음화에 의해 '봐도[L·HL]'가 되었으며, [+원순성]의 중복에 의해서 반모음 w가 탈락하여 '바도[L·HL]'가 형성되었다. 두 지역어 모두 형태소 내부에서도 '순자음+워/와'의 연쇄가 일어나지 않고 [+원순성]의 중복으로 인해 반모음 w가 필수적으로 탈락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는 달리 (5)의 경우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에서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ㅜ'이므로 w 반모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활용형 '아파사'를 예로 든다면, 어간 '아푸-+-아'에서 w 반모음화에 의해 '아퐈사'가 되고, 필수적인 반모음 w 탈락에 의해 '아파사'가 도출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5)의 예들은 (4)의 예들과 적어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조 층위까지 고려한다면 어미 '-아'와 결합하는 어간의 기저형을 단일한 기저형 '아푸-'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김봉국(2001)의 논의를 토대로 한다면 공시적인 분석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의 기저형은 '아푸-'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의 기저형은 '아프-'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삼척〉은 w 반모음화가 일어나면 '*아퐈사'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아파사'만 실현되며, 두 개의 성조가 한 음절에 병치되는 고저복합조(H·L)가 일어나지 않는 사실에서 '아푸[LH]+아[L] → 아파[HL]'를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도출할 수 없다. 〈울진〉 또한 w 반모음화가 일어난 후 (2)의 예와는 달리 필수적인 w 탈락으로 '아파사'가 실현되며, 두 개의 성조가 한 음절에 병치되는 고저복합조(H·L)가 일어나지 않는 사실에서 '아푸[LH]+아[L] → 아파[HL]'를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4)와는 달리 (5)는 불규칙활용(또는 복수기저형)으로 처리할 만한 예이며, 어간의 기저형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일 때는 /Xㅜ-/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일 때는 /X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의 예에서는 w 반모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5)의 어간 기저형

/X┬-[LH]/+C ∞ /X_-[H]/+V[8]

〈표 2〉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순음인 경우

어간말	규칙 적용 양상	지역어
개음절 어간	w 반모음화, w 탈락	〈삼, 울〉

3)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인 경우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인 어간에서 w 반모음화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6) 와도[LH], 오고[HL], 오니[LH] 〈삼〉
　　와도[HH], 와바라[HHL], 오고[HL], 오소[HH] 〈울〉
(7) 배와[HL], 배우고[HLL] 〈삼〉
　　배아[HL], 배운다[HLL] 〈울〉[9]
　　세와[HL], 세우고[HLL] 〈삼〉
　　세아[HL], 세우고[HLL] 〈울〉
　　치와라[HLL], 치우고[HLL] 〈삼〉
　　이아라[HLL], 이운다[HLL](지붕을~) 〈울〉

(6)은 1음절 어간, (7)은 2음절 어간인 경우인데, 두 지역어 모두 음절수에 관계없이 w 반모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다만 (6)처럼 1음절 어간일 때 〈삼척〉과 〈울진〉 모두 w 반모음화에 의해 '와'가 실현된다는 점이 공통적이나, (7)처럼 2음절 어간일 때 〈삼척〉은 w 반모음화에 의해 '배와, 세와, 치와'가 실현되나 〈울진〉은 w 반모음화에 이은 w 탈락에 의해 '배아, 세아, 이아'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6)의 '오-+-아'는 음소 층위에서 w 반모음화에 의해 '와'가 되지만, 성조

8) '∞'는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선택되는 기저형을 의미한다.
9) 주의 깊은 발화나 일상 발화에서 w 반모음화가 실현된 '배와'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w가 탈락된 '배아'의 실현 빈도가 '배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층위에서 한 음절에 두 개의 성조소가 병치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10] (7)은 (2)의 예와 도출 과정에서 보이는 양상이 동일하다.

〈삼척〉
배우[HL]+아라[LL]
↓ - w 반모음화(L·L화)
배와라[HL·LL]
↓ - L 탈락
배와라[HLL]

〈울진〉
배우[HL]+아라[LL]
↓ - w 반모음화(L·L화)
배와라[HL·LL]
↓ - L 탈락
배와라[HLLL]
↓ - w 탈락
배아라[LHL]

[정리]

〈표 3〉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인 경우

어간말/ 어간 음절수		규칙 적용 양상	지역어
개음절	1	w 반모음화	〈삼〉
		w 반모음화	〈울〉
	2	w 반모음화	〈삼〉
		w 반모음화, w 탈락	〈울〉

4) 이른바 불규칙활용의 경우

이 절에서는 전통문법에서 불규칙활용으로 처리되어 온 어간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전통문법에서 불규칙활용으로 처리되어 왔던 예들은 생성음운론을 바탕에 둔 이론적인 배경에서 비춰 보면 공시적인 음운규칙에 의해 단일 기저형으로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최명옥(1985/1998)에서처럼 복수기저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절에서는 전통문법에서 불규칙활용으로 처리되어 왔던 예들을 생성음운론을 이론적 바탕에 둔 복수기저형으로 처리하는

10) 활용형 '와'의 예외성에 대해서는 김완진(1972), 이병근(1978) 등에서 이미 지적된 바가 있다.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서, w 반모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음운론적 환경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앞서 (5)의 예도 'ㅜ' 불규칙활용이므로 어간의 기저형은 '/Xㅜ-[LH]+C' 또는 '/X_[H]-/+V/'와 같이 복수기저형을 갖기는 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 기저형이 'X_-'이므로 w 반모음화가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

(5)의 예와는 달리 이번에는 복수기저형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에 w 반모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8) 버도[H·LL], 부꼬[L·HL], 부니[H·LL](붓-) 〈삼〉
버라[H·LL], 부꼬[L·HL], 부니[H·LL](붓-) 〈울〉
(9) 꽈야[H·LL], 꾸꼬[L·HL], 꾼는다[L·HLL](굽-) 〈삼〉
꼬서[H·LL], 꼬라[H·LL], 꾸꼬[L·HL](굽-) 〈울〉
좌도[H·LL], 좌라[H·LL], 준는다[L·HLL](줍-)〈삼〉
쪼서[H·LL], 쭈꼬[L·HL], 쭌는다[L·HLL](줍-) 〈울〉

표준어에서 (8)은 ㅅ 불규칙활용,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순음인 예이며, (9)는 ㅂ 불규칙활용,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기타 자음인 예이다. (8)과 (9)의 예를 비교해 보면 〈삼척〉과 〈울진〉은 이른바 ㅅ 불규칙활용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 주며, 이들의 어간 기저형은 김봉국(2000:25)에서처럼 각각 재구조화된 /붓-/, /꿑-/, /줏-(~쭛-)/이라고 할 수 있다.

(8)의 경우에 〈삼척〉과 〈울진〉 모두 동일하게 '붓[H]-+-어라[LL]'는 후음 ㅎ 탈락(부어라[HLL]), w 반모음화(붜라[H·LL]), [+원순성] 중복에 따른 w 탈락(버라[H·LL])의 도출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9)의 경우에 〈삼척〉은 후음 ㅎ 탈락에 이은 w 반모음화가 일어난 반면 〈울진〉은 후음 ㅎ 탈락에 이은 '워→오' 축약이 일어났다. 어간 '꿑-'을 예로 들자면 〈삼척〉은 이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로 '-아'가 선택되어 '꿑-+-아'가 ㅎ 탈락(꾸아[HL]), w 반모음화(꽈[H·L])를 겪었고, 〈울진〉은 이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로 '-어'가 선택되어 '꿑-+-어'가 ㅎ 탈락(꾸어[HL]), '워→오' 축약(꼬[H·L])를 겪었다. 이들은 다

음과 같은 도출 과정을 거친 것이다.

〈삼척〉	〈울진〉
꿇[H]+아래[LL]	꿇[H]+어래[LL]
↓ - ㅇ 탈락	↓ - ㅇ 탈락
꾸아래[HLL]	꾸어래[HLL]
↓ - w 반모음화(H·L화)	↓ - '워→오' 축약(H·L화)
꽈래[H·LL]	꼬래[H·LL]

ㅂ 불규칙활용의 교체형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복수기저형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의 기저형은 /Xㅂ-/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의 기저형은 /Xㅜ-/이다(최명옥 1985/1998). 따라서 어간 /Xㅜ-/와 어미 '-어/아'가 결합하게 되면 w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제공된다. 이른바 ㅂ 불규칙활용을 하는 다음의 예를 보자.

(10) 도와[HL], 돕꼬[L·HL], 돔는다[L·HLL](돕-)〈삼, 울〉
미와도[HLL], 밉따[HL](밉-) 〈삼, 울〉
고마워요[L·HLL], 고맙따[L·HLL](고맙-) 〈삼, 울〉
(11) 춥아[HH], 춥운데[HHL], 춥어사[HHL] 〈울〉
곱아[L·HL], 곱따[L·HL] 〈울〉
덥아[HL], 덥따[L·HL] 〈울〉
찹아서[HHL], 찹따[HH] 〈울〉
개룹나[HLL], 개룹아[HLL], 개룹능거[HLLL] 〈울〉
뜨급따[HHL], 뜨급능[HHL] 거는[LL] 〈울〉
(12) 아숩웅 거[HLLL], 아수웅 게[HLLL] 〈울〉

(10)은 두 지역어에서 실현되는 이른바 ㅂ 불규칙활용의 예이며, (11)은 〈울진〉에서 실현되는 ㅂ 규칙활용의 예이다. ㅂ 불규칙활용의 실현 빈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삼척〉의 경우에는 ㅂ 규칙활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ㅂ 불규칙활용이 어휘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일어

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울진〉의 경우에는 어휘에 따라 (10)처럼 ㅂ 불규칙활용을 보이거나, (11)처럼 ㅂ 규칙활용을 보이기도 하며, (12)처럼 동일한 단어 내에서도 ㅂ 규칙활용과 ㅂ 불규칙활용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11]

복수기저형의 관점에서 (10)의 경우, 〈삼척〉과 〈울진〉 모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 기저형은 각각 /도우-/, /미우-/, /고마우-/이며, 이것이 어미 '-어/아'와 결합하여 w 반모음화에 의해 각각 '도와[HL], 미와[HL], 고마워[L·HLL]'가 실현된 것이다.

(10)의 어간 기저형 '도우-, 미우-, 고마우-'는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이고, 2음절 어간인 (7)과 음운론적 환경이 동일하다. 그런데 〈울진〉의 경우에는 동일한 환경임에도 (7)의 예에서 '배아, 세아'처럼 w 탈락이 일어나지만, (10)의 예에서는 w 탈락이 잘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울진〉의 경우 w 탈락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7)의 예처럼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ㅜ'인 어간일 때보다 복수기저형에서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ㅜ'인 어간일 때가 상대적으로 w 탈락이 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12]

[정리]

〈표 4〉 이른바 불규칙활용의 경우

유형/어간말음절 두음		규칙 적용 양상	지역어
ㅅ 불규칙활용	순음	o̯ 탈락, w 반모음화, w 탈락	〈삼, 울〉
	기타 자음	o̯ 탈락, w 반모음화	〈삼〉
		o̯ 탈락, w 반모음화, '워→오' 축약	〈울〉
ㅂ 불규칙활용	∅	w 반모음화(활발)	〈삼〉
		w 반모음화(일부)	〈울〉

11) ㅂ 불규칙활용과 관련된 〈울진〉의 이러한 특성은 전광현(1981), 주상대(198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2) '어둬지거등[HLLLL], 어두어[HLL], 어둡다[HLL]'에서 보듯이 〈울진〉에서 w 탈락이 일부이지만 실현되기도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의 접경지역인 삼척 지역어와 울진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여 w 반모음화와 관련된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음운론적인 환경에 따라 w 반모음화와 관련된 현상이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① 동사의 어간말음절 두음의 자음 유무, ② 자음이 있을 경우에는 자음의 종류, ③ 동사 어간의 음절수, ④ 어간말이 개음절인지 폐음절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기타 자음인 경우에는 1음절 어간에서 〈삼척〉은 w 반모음화가, 〈울진〉은 w 반모음화 이후, w 탈락 또는 '워→오' 축약이 일어났으며, 2음절 어간에서 〈삼척〉은 w 반모음화가, 〈울진〉은 w 반모음화에 이은 w 탈락이 일어났다. 또 어간말 후음 어간인 경우에는 어간 음절수에 관계없이 〈삼척〉은 후음 탈락에 이은 w 반모음화가, 〈울진〉은 후음 탈락, w 반모음화, w 탈락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ㅂ인 경우에는 〈삼척〉, 〈울진〉 모두 w 반모음화에 이은 필수적인 w 탈락이 일어났다.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인 경우에는 〈삼척〉, 〈울진〉 모두 1음절 어간에서 w 반모음화가 일어났지만, 한 음절에 두 개의 성조가 병치되지 않는 예외적인 특징을 보인다. 2음절 어간에서 〈삼척〉은 w 반모음화가, 〈울진〉은 w 반모음화에 이은 w 탈락이 실현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ㅅ 불규칙활용과 관련된 예 중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순음인 경우에 두 지역어 모두 후음 탈락, w 반모음화, w 탈락이 일어났고,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기타 자음인 경우에 〈삼척〉은 후음 탈락, w 반모음화가, 〈울진〉은 후음 탈락, w 반모음화, '워→오' 축약이 일어났다.

ㅂ 불규칙활용과 관련된 예 중 〈삼척〉은 w 반모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특징을 보였으나, 〈울진〉은 어휘에 따라서 w 반모음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휘에 따라서는 ㅂ 규칙활용을 하기 때문에 w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김봉국,「삼척지역어의 성조연구」,『국어연구』150, 서울대 국어연구회, 1997.
_____,「강릉삼척 지역어의 활음화」,『한국문화』26,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0, 1-33면.
_____,「강릉삼척지역어 '-어/-아'계 어미의 교체와 음운현상」,『어문연구』(여름호) 2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71-92면.
_____,「(2013년도) 강원 지역어 전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3.
_____,「강원·경북 동해안 접경 지역의 y 반모음화 관련 현상」,『영주어문』50, 영주어문학회, 2022, 5-24면.
김영선·김백희,「울진 방언과 삼척 방언의 음운 체계 연구」,『우리말연구』34, 우리말학회, 2013, 141-162면.
김완진,「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동아문화』11,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2, 273-299면.
박숙희,「경북 동해안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05.
오종갑,「동해안 어촌 지역어의 음운론적 비교」,『어문학』82, 한국어문학회, 2003, 33-99면.
윤주희,「전이 지역 방언의 음운 연구」, 우리말학회 학술대회지, 우리말학회, 2017, 38-60면.
이경진,『(三陟東海太白圈 사투리)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예문사, 2003.
이병근,「동해안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진단학보』36, 진단학회, 1973, 133-147면.
_____,「국어의 장모음화와 보상성」,『국어학』6, 국어학회, 1978, 1-28면.
이익섭,「강릉 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진단학보』34, 진단학회, 1972, 97-119면.
_____,『영동영서의 언어분화 - 강원도의 언어지리학』, 서울대 출판부, 1981.
전광현,「동해안방언의 어휘(II)」,『국문학논집』10,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1981, 215-234면,
전혜숙,『강원도 동해안 방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8.
주상대,「울진방언의 음운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75.
_____,「울진 지역어 모음의 음운현상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1989.
_____,「경북 북부 방언의 음운 축약」,『수련어문논집』19, 부산여대 수련어문학회, 1992, 115-138면.
최명옥,「동해안방언의 음운론적 연구」,『방언』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979, 1-34면.
_____,「변칙동사의 음운현상 : p-, s-, t- 변칙동사를 중심으로」,『국어학』14, 국어학회, 1985[최명옥(1998)에 재수록].
_____,「'X]]Vst 어Y'의 음운론」,『진단학보』, 진단학회, 1995, 167-190면.
_____,『국어음운론과 자료』, 태학사, 1998.

【Abstract】

Phenomena related to w Glide Formation in the border region of the east coast of Gangwon-Gyeongbuk

Kim, Bong-Goo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henomena related to w Glide Formation by targeting the Samcheok and Uljin regional dialects, which are bordering regions of the east coast of Gangwon-do and the east coast of Gyeongsangbuk-do. Since the phenomenon related to w Glide Formation shows various appearances depending on the phonological environment(①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consonant in the stem syllable of a verb, ② the type of consonant if there is a consonant, ③ the number of syllables in the stem of the verb, ④ whether the stem ending is an open syllable or a closed syllable), the application aspect of the phonological rule was examined.

In the case where onsets of the stem-final syllable is other consonants, w glide formation occurs in the Samcheok regional dialect, but in the Uljin regional dialect, w glide formation followed by w deletion or w glide formation followed by 'wə → o' vowel coalescence occurs. In the case where onsets of the stem-final syllable is labial consonants, the necessary w deletion following w glide formation occurred in both regional dialects. In the case where onsets of the stem-final syllable is ∅, w glide formation occurs in both regional dialects, and w deletion occurred additionally in the Uljin regional dialect.

Lastly, in the case of s irregular conjugation, In the case where onsets of the stem-final syllable is labial consonants, w glide formation occurs in both regional dialects, and 'wə → o' vowel coalescence occurred additionally in Uljin regional dialect.

in the case of p irregular conjugation, w glide formation occur actively in the Samcheok regional dialect, but it is occur partly in the Uljin regional dialect.

* Professor, Dept. of Korean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 of Education.

Keywords: Samcheok regional dialect, Uljin regional dialect, w Glide Formation, wə→o Vowel coalescence, w Deletion, Border regions, Irregular conjugation, Plural underlying form.

접수일: 2022.03.31. || 심사일: 2022.04.13. || 게재확정일: 2022.05.12.